



11월 교사교육(중) 수강 후기

EVENT 당첨자 발표



선한직무력 I - 센스있는 교사들의 비밀도구 : Canva 100% 활용하기
최*지(4482)

전체적으로 교사의 디지털 자료 제작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연수였습니다. 캔바의 다양한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자료 제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향후 교육 활동과 소통 자료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항상 다채로운 주제로 교육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직무력 I - 센스있는 교사들의 비밀도구 : Canva 100% 활용하기
조*영(1793)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설명 들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교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아름 모아다 주시니 겨울 양식 모으는 다람쥐가 된 기분입니다^^ 도움 주시는 만큼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선한직무력 I - 센스있는 교사들의 비밀도구 : Canva 100% 활용하기
이*아(1039)

활동자료를 만들 때면 배경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전에 다른 어플들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캔바에서 더욱 깔끔하게 따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한직무력 I - 센스있는 교사들의 비밀도구 : Canva 100% 활용하기
박*주(5263)

sns를 통해 강사님의 노하우를 엿보다가 좋은 기회로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패널 외에도 안내문, 가정통신문과 같은 틀과 양식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해주셔서 좋았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직무력 I - 센스있는 교사들의 비밀도구 : Canva 100% 활용하기
홍*선(3374)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활동을 준비할 때 특히 유익할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요즘 자주 활용되는 작업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 항상 좋은 배움의 순간들이랍니다. 키즈넷원격평생교육원 감사합니다.^^



11월 교사교육(줌) 수강 후기

EVENT 당첨자 발표



선한직무력 2 - 글자 이전의 문해교육, 놀이로 시작하는 문해 감각 키우기

정*영(0693)

문해력은 '앓혀놓고 글씨 가르치기'가 아니라, 일상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가 사물을 탐색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모든 과정이 이미 문해 발달의 기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직무력 2 - 글자 이전의 문해교육, 놀이로 시작하는 문해 감각 키우기

김*영(7593)

아이들이 한글을 친숙하게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억지로 주입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알 수 있도록 비계를 잘 설정해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선한직무력 2 - 글자 이전의 문해교육, 놀이로 시작하는 문해 감각 키우기

전*진(6908)

다양한 생활 속 환경이 유아들의 문해력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놀이 속에서 많이 녹일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겠어요 ☺



선한직무력 2 - 글자 이전의 문해교육, 놀이로 시작하는 문해 감각 키우기

박*주(4228)

특히 연령별로 다양하게 교수 방법을 안내해야 함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심이 좋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뿐만 발달 관련 보육으로 이루어진 교사교육 칭찬합니다!



선심안정 - 한 잔의 커피, 한 조각의 나 : 커피로 만나는 감성 테라피

서*영(1685)

커피 향과 온기를 활용해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셔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심안정 - 한 잔의 커피, 한 조각의 나 : 커피로 만나는 감성 테라피

이*원(8490)

커피의 문화사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익숙한 커피 한 잔이 마음을 돌보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교육 덕분에 교실에서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엄마로서의 일상에 작은 휴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성 테라피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